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ping Behavior Type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조교수 김시월
건국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박배진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ousing, Konkuk Univ.

Assistant professor : Kim Si Wuel

Doctoral course : Park Bae J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 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coping behaviors of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s representing certain coping behaviors.

For empirical analysis, the data of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868 housewives living in Seoul and Sungnam.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is are frequency, percentage, mean,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Logit analysis.

In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the coping behaviors are classified by three factors - financial management, negative, positive. The result of the logit analysis shows that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nd subjective burden are the most critical variables for classifying the coping behaviors.

I. 서론

가족의 복지수준은 가계가 지니고 있는 경제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나,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경제환경에서 지니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

구나 생활주기가 자녀교육기에 해당하는 가계는 타 항목의 소비지출을 희생하면서 높은 비중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가계의 심각한 경제적 부담감을 야기하며, 가족원의 욕구충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비의 지출이 인적자본이론에 따라 자녀의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계의 교육비는 핵심적 소비지출이며, 필수적인 성격을 지닌 지출비목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서울·신도시 주부의 경우, 이들 가계의 자녀가 중·고교생일 경우 교육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8.1%로 나타난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 주부들의 66.6%가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앞으로 수입이 줄더라도 교육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응답도 53.2%로 나타나고 있어(경향신문, 1998. 8. 18), 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자녀교육에 있어 가장 큰 제약은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충당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은 자녀교육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부각되는 관심은 이러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가계의 적절한 대처행동이다. 그러나 기존 사교육비와 관련된 연구동향(박명희, 1976; 김성희, 1996; 정영숙, 1996; 양세경·이윤금, 1997; 박배진, 1997; 윤성인, 1997; 김시월, 1998)을 살펴보면, 가계의 교육비지출 실태와 그와 관련된 요인 및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교육비에 대한 지출로 인해 가계의 재정문제와 경제적 복지, 소비지출에 곤란이 있음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지출비용을 통해 예측할 뿐 이러한 부담감에 대한 가계 행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감에 대한 가계의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가계가 지출하는 사교육비 액수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개인적 요소와 가계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각하는 경제적 부담감은 상이할 것이다. 실제로 가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수준보다는 오히려 지각된 주관적인 정도이며, 가계는 이 주관적인 경제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처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자녀교육을 위한 비용은 그 총

액으로 보면 상당히 크지만 다행히 일시에 고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계에서는 지출계획을 다소 유동적으로 세울 수 있어 대처행동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가계가 사교육비로 인한 동일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대처방법을 통해 경제적 스트레스나 해결방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에 관한 대처행동을 통해서 가계의 대처행동유형별 특징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는 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유형화하여 분류한다. 셋째는 대처행동의 유형화에 따라 관련변인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가계가 소유한 경제적 자원을 유지·보존하고 미래 경제적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1.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구조 및 부담정도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감은 우리 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교육비지출의 총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에 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교육비 구성비는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타지출비목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박명희(1976)는 가계에서 지불되는 사교육비 현황과 교육비지출에 수반되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 및 특징을 연구한 결과, 가구별 평균 교육비 지출은 21%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과 교육비 지출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엔겔계수로 추정된 생활수준과 교육비 지출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수준에 관계 없이 교육비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김영숙(1983)은 장기 생활설계를 위한 가계분석

연구에서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기초로 한 가구주 연령계층별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생활주기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교육비로 나타났다. 가계의 교육비는 40대 초반에는 급속히 상승하고,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에는 정점에 이르며, 50대 후반 이후에도 역시 높은 교육비 부담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정영숙(1996)은 중·고교생이 있는 가계의 교육비는 총소비지출액의 24.5%를 차지하여 다른 어떤 항목들보다도 그 비율이 높았다. 또한 경제적 복지와 유사한 관계를 가지는 지출변수들 중 사교육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교육비와 경제적 복지수준과의 강한 연계는 이들 가계의 사교육비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반영한다. 이러한 높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계가 소득의 크기나 경제규모에 비해 무리하게 할애하는 경향이 사교육과 경제적 복지수준과의 부적인 관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최자영·임정빈(1996)은 도시 가정에서 경험하는 재정적 사건에서 곤란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사건의 내용별로는 자녀과의비로 나타났다. 또한 이것은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보았다. 허경옥(1997)은 한국가구패널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식비 다음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고소득가계의 경우 월평균 17만원, 저소득가계의 경우 16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저소득에 비해 고소득 가계가 자녀교육비에 대한 지출비가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ino, 1990, 1994).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교육 실태 및 국민의식조사(1997)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신학기인 3월이 19만 6,938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강남·서초지역은 40만 2,294원(2, 3월 평균)으로 전체 평균비용보다 2.2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의 77.5%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전체의 15.5%가 부업활동, 은행대출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사교육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인 가구도 전체 가구의 8.3%를 차지하고, 사교육비 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부업활동 등을 통해 비용을 마련하는 가구

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체교육비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적인 면에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은 부모의 빈부의 차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데 국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사교육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기회가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이다(윤정일, 1997).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고소득 가계나 저소득 가계의 교육비지출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비가 단순히 소비·지출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상당부분이 인적자본 투자라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가계의 제한된 소득수준에서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욕구충족의 절대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대적 측면에서도 결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2. 대처행동

최근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경험하는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대처행동으로 그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대처에는 자극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및 해소에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개념과 자극으로 초래된 변화나 위기를 조절하는 적응행동으로서의 개념이 있다. 따라서 대처행동이란 자극 원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과 가계의 노력(Pearlin과 Schooler, 1978)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대처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불안 타개책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자극 그 자체보다 그 대처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조희선, 1991). 이러한 대처행동은 시스템으로서의 가족에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여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계의 경제적 불안은 가계에 대해 자극이 되는데 가계는 이에 반응하여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대처행동을 하게 된다(황덕순, 1995).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은 행동의 특성에 따라 하위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행동의 유무 또는 적극성 정도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가족의 대처행동을 특정 스트레스원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한 Voydanoff와 Donnelly(1989)는 지출삭감, 가정생산증대, 배우자 취업, 저축사용, 부채 등이 주로 사용되는 대처행동이라고 보고하였으며, 5개의 대처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재무관리 요인'에는 지출 기록을 통한 예산 수립, 금전 사용시 우선순위 결정, 시간과 금전 사용법에 대한 사전계획 여부가 포함되었으며, '비공식적 경제 요인'에는 식료품 구입시 소비조합 이용, 중고품 등의 염가구매 이용, 다른 사람들과의 상부상조, 개인용품 판매, 돈을 벌기 위해 잡일을 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었다. 'DIY(Do-It-Yourself)요인'에는 수선이나 작업을 스스로 하고, 과일이나 야채재배를 통한 돈을 저축, 의복을 만들어 입는지 여부가 포함되었다. '가족취업노력 요인'에는 취업한 가족원의 부업, 가족원의 연장근무, 직업이 없는 가족원의 취업노력 여부가 포함되었으며, '과도확장(overextension)요인'에는 신용사용 또는 대출과 저축 사용이 포함되었다(노자경, 1996 재인용).

황덕순(1995)은 경제적 불안에 대한 대처행동을 3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요인 1에는 중고품 구매, 부업, 가구의 취직 노력, 시간외 근무 등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 두드러지지만 경제적 불안이 발생한 후에 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을 '피동적 적응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가계부기록, 예산수립, 저축, 계획구매, 계획지출 등 가계관리 과정을 통하여 관리적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사전에 경제적 불안을 미리 예방하는 노력이 포함되므로 '의도적 관리행동'으로 명했다. 요인 3에는 충동구매 피하기, 염가 구매, 신용구매, 대중교통수단활용 등과 같이 일상적 생활에서 근검의 생활규범을 강조하는 행동특성들이 포함되는데 이를 '규범적 절약행동'으로 명했다.

또한 저소득 도시가계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분석한 몇몇 연구들은 이들 가계의 소득획득, 소비지출에서의 적응노력을 밝히고

있다. Dunkelberg 등(1971)은 취업자수나 취업시간을 늘리는 것과 같은 소득획득방식에서의 단기적인 적응이 가계의 차용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며, 서울 중심부의 빈민가를 연구한 박영숙(1983)과 생산직 노동자가계를 대상으로 한 팽경인(1988)의 연구에서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 가계는 소득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가구원 모두의 가능한 소득을 결합하여 가족의 생계유지비용을 충당하며 상시고용 뿐 아니라 다양한 임시고용 형태의 주변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상희, 1995 재인용).

윤성인(1997)은 부모가 자녀의 과외학습비 지출을 위한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으로는 무리형, 내핍형, 종합형, 여력형으로 분리하였다.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은 생활비를 줄여서 마련하는 내핍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산 및 저축이용, 동산 및 부동산 처분, 취업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무리형이 많았다. 그리고 내핍형과 무리형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종합형, 경제적 여유가 있고 과외학습비에 무리한 지출을 하지 않으므로 생계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여력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과외학습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계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 대처행동의 중요성은 대처행동의 목표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다. 즉 Skinner(1983)에 의하면 대처는 첫째,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을 강조시키고, 둘째, 가족을 보호하는 가족체계 지원들(응집력, 적응력, 조직력 등)을 강화·유지시키며, 셋째, 위험한 사건과 이에 따른 고난을 감소 또는 제거시키고, 넷째,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노자경, 1996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수준은 대처행동의 목표를 통해 각 행동의 수준을 측정된 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의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대처행동의 결과를 사교육비와 같은 특정 경제적 부담감에 대한 대처행동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노자경

(1996)은 같은 생활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가족에 따라 그 심각도와 대처방식이 다르므로 가족의 복지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경험 유무보다는 어떠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경험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가계의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계의 대처행동의 실태 파악을 통해서 대처행동의 유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처행동 관련변인의 규명 등 유형별 특징에 관한 고찰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3. 관련변수의 고찰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부의 교육수준과 교육비 지출은 정적인 관계가 있다(최승애, 1985; 김성희, 1996; 양세정·이윤금, 1997). 자녀수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나 자녀 한 명을 위한 교육비 지출은 감소하였다(Becker, 1993; Lino, 1990, 김성희, 1996 재인용). 반면 정영숙(1996)의 연구결과 자녀수는 공교육비에만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재화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가계에 있어서 소득수준의 차이는 각 가계의 소비지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영숙(1996)은 가계의 소득수준과 유동자산이 증가할수록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며, 김성희(1996)의 연구결과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량에는 부모의 특성보다는 자녀변수와 투자능력을 나타내주는 재정변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중 사교육비는 가계지출에서 선택비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의 정적인 관계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윤금·양세정(1997)의 연구결과에서 가계의 교육비구성비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일정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높은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를 간접적으로 시

사한다.

또한 정영숙(1996)의 연구에서 주거소유형태와 교육비 지출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김인숙·여정성(1996), 윤성인(1997)은 사교육비는 거주지역에 따라 강북보다는 강남지역에서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대처행동유형에 관한 선행 연구는 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생활사건과 관련된 대처행동의 측면을 살펴보면, 김미라(1993)는 연령에 따라 가계관리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연령이 적은 집단은 저축이용방법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연령이 많은 집단은 지출절임, 재산처분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에 있어서 장병옥(1985)은 주부의 학력이 적응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김혜정(1995)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은 대처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최자영·임정빈(1996)은 소득과 순자산이 적은 가정은 자원의 부족으로 다른 대처전략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저축을 줄여서 절약하는 긴축재정의 대처전략을 보편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덕순(1995)은 소득이 적을수록 피동적 적응행동과 규범적 적응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또한 손상희(1995)는 중고등교육기에 있는 가계가 자녀독립기 가계에 비해 '재정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고등교육기의 현재 뿐 아니라 자녀교육비 마련과 같은 대학교육기에 대비하여 재정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의 대처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나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관련변수 선별이 어렵다.

따라서 사교육의 실질적인 비용과 관련 있는 변수중에서 유의한 변수로 밝혀진 부모의 연령, 학력, 취업, 자녀수, 가계소득, 금융자산, 부채보유액, 저축, 주택소유형태, 거주지, 사교육비 지출액수, 사교육비 부담감을 포함시켰다. 여기에서 거주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자녀의 교육여건과 사교육 교육시장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¹⁾. 또한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교육

비 지출, 부담감, 대처유형이 일련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서울 및 성남시에 소재 하는 중학교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가계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의적인 표본으로 5개의 중학교(강남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소재), 5개의 고등학교(강남구, 광진구, 마포구, 성북구, 성남시 소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소집단 토의(focus group)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거친 뒤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1997년 12월 1일부터 1998년 1월 10일까지 개별 인터뷰 및 응답자 스스로의 기입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1,300부의 질문지 중 868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모델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대처행동유형 Y는 사교육비지출과 경제적 부담감에 대한 함수관계이다.

$$Y = f(V, D, E)$$

여기서 Y는 사교육비의 대처행동, V는 사교육비 지출, D는 가계의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E는 그 외 사회인구학적 요소이다.

전체 표본에서 유형별 대처행동은 선형의 관계가 아니므로 본 분석에서는 Dichotomous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최종모델은 다음과 같다.

$$Y_n = \alpha + \beta_1 MAGE + \beta_2 MEDU + \beta_3 MWORK + \beta_4 FWORK1 + \beta_5 FWORK2 + \beta_6 FWORK3 + \beta_7 CHILD + \beta_8 INCOME + \beta_9 DEBT + \beta_{10} SAV + \beta_{11} ASSETS + \beta_{12} HTENURE + \beta_{13} LOCAT1 + \beta_{14} LOCAT2 + \beta_{15} LOCAT3$$

$$+ \beta_{16} V + \beta_{17} D + e.$$

여기에서 Y_n = 각각의 대처행동유형; MAGE = 모의 연령; MEDU = 모의 학력; MWORK = 취업주부 (vs. 비취업주부); FWORK1 ~ FWORK3 = 부의 직업(일용근로직, 사무직, 전문/관리직 vs. 자영업자·제조업자); CHILD = 자녀수; INCOME = 가계소득; DEBT = 부채보유액, SAV = 저축; ASSETS = 자산; HTENURE = 주택소유형태(자가 vs. 타가); LOCAT1~LOCAT3 = 거주지(광진·성동·송파, 성북·마포·강북, 성남 vs. 강남·서초); V =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액수; D =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감이며, α 와 e 는 각각 상수항과 오차항이다.

1)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대처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의 정도를 묻는 문항을 중심으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교육비 대처행동에 대한 관련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Program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모와 부의 연령, 학력, 모와 부의 직업, 자녀수, 소득, 부채, 저축, 자산, 주택소유형태, 거주지역을 포함하였다. 모와 부의 직업, 주택소유형태, 거주지역은 가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변수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한달 평균소득은 남편의 근로소득과 부인의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월급, 보너스, 부업소득 등의 월평균 금액이다. 가계저축액은 가계의 적금, 보험, 연금 등을 합한 월평균 금액이며, 부채보유액은 은행대출, 사채, 할부납입금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주식, 저축 및 적금 보유액, 건물임대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각각 만원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1) 본 연구에서 거주지역은 강남지역과, 근접지역, 그리고 강북과 신도시로 대변되는 성남지역을 포함하여 지역차이를 살펴보고자 편의상 유의적인 표본추출을 하였다.

〈표 1〉 조사대상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N(%)=868(100%)*

변수	집 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부 인 의 령	~39세	184(23.0)	42세 (3.74)
	40세~44세	452(56.6)	
	45세 이상	163(20.4)	
남 편 의 령	44세 이하	329(42.9)	45세 (4.15)
	45세~49세	326(42.5)	
	50세 이상	112(14.6)	
부 인 의 학 령	중졸 이하	220(27.0)	11년 (2.49)
	고졸	452(55.5)	
	전문대졸 이상	142(17.5)	
남 편 의 학 령	중졸 이하	125(15.9)	12년 (2.78)
	고졸	394(50.2)	
	전문대졸 이상	266(33.9)	
주 부 의 취 업 유 무	비취업주부	423(52.5)	
	취업주부	383(47.5)	
남 편 의 직 업	일용근로직	151(19.1)	
	자영상인·제조업자	298(37.6)	
	사무직	81(10.2)	
	전문·관리직	262(33.1)	
자 녀 수	1명	116(14.9)	1.9 (0.54)
	2명	547(70.5)	
	3명 이상	113(14.6)	
월 평 균 소 득	150만원 이하	131(18.9)	249만원 (130.44)
	151만원~200만원 이하	170(27.3)	
	201만원~300만원 이하	236(34.0)	
	301만원 이상	137(19.8)	
부 채 보 유 액	없다	455(65.1)	581만원
	~1,000만원	138(19.7)	
	1,001만원 이상	106(15.2)	
월 평 균 저 축 액	~30만원	257(36.6)	65만원 (66.41)
	31만원~60만원	180(25.6)	
	61만원~100만원	165(23.4)	
	101만원 이상	101(14.4)	
금 융 자 산	100만원 이하	443(63.8)	1997만원 (4418.61)
	101만원~4,000만원	136(19.6)	
	4,100만원 이상	115(16.6)	
주 택 소 유 형 태	자가	470(63.3)	
	타가	264(35.5)	
거 주 지	광진·성동·송파	325(40.9)	
	강남·서초	122(15.4)	
	성북·마포·강북	218(27.5)	
	성남	129(16.2)	

*무응답으로 인하여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실태

조사대상자 가계의 월평균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살펴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15만원, 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1997)에서 나타난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25,664원, 그리고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12,609원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월평균 사교육비지출 실태

변수	집 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중 학 생	10만원 이하	445(53.0)	14,99(18.76)
	11만원~25만원 이하	204(24.4)	
	26만원 이상	190(22.6)	
고 등 학 생	10만원 이하	469(55.9)	18,67(26.31)
	11만원~25만원 이하	131(15.6)	
	26만원 이상	239(28.5)	

3. 가계의 사교육비부담감

가계의 사교육비부담감을 측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교육비로 인한 전체 부담감은 중간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하부 문항 중에서는 재정적 문제를 가장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로 가계의 저축액수나 오락비, 기타 잡비의 비목 삭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았다.

〈표 3〉 가계의 사교육비부담감

문	항	평균(표준편차)
	사교육비로 인하여 자녀의 책값, 용돈 등을 제때 주지 못한 적이 있다.	2.49(1.58)
	사교육비로 인하여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	2.84(1.42)
	사교육비로 인하여 가족의 외식, 여행 등을 포기한 적이 있다.	2.66(1.44)
	사교육비로 인하여 가계의 저축액수가 줄었다.	3.27(1.40)
	사교육비로 인하여 가계의 오락비, 기타 잡비의 지출을 삭감하고 있다.	3.07(1.39)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자녀 결혼 및 노후준비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	2.93(1.38)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재정적 문제로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다.	3.35(1.37)
전	체	3.08(1.12)

〈표 4〉 대처행동의 요인행렬표

문 항	요 인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계획 행동	절약 행동	소득 창출행동
1. 가족의 재정상태(소득, 재산, 저축, 부채, 저축액 등)를 세밀히 점검하여 예산을 세운다.		0.75450	0.13847	0.06155
2. 소득 중 일정금액을 미리 저축하고 나머지를 쓴다.		0.70894	-0.00022	-0.12142
3. 한달 생활비는 사교육비를 위해 예산을 세워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지출은 기록하고 점검한다.		0.69828	0.10037	0.15375
4. 쓸 돈을 미리 정해놓고 그 이상은 쓰지 않는다.		0.63514	0.31969	-0.06489
5. 잡지나 보고싶은 책 등을 구입하지 않고 남이 보고 난 후에 빌려서 본다.		0.13248	0.70032	0.06942
6. 멀고 불편하더라도 가격이 싼 상점을 찾아가서 물건을 구입한다.		0.47829	0.56249	0.07247
7. 필요한 물건은 중고품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		0.03962	0.54671	0.31747
8. 식품을 구입할 때는 연쇄점이나 도매시장을 이용하여 싸게 산다.		0.45474	0.53449	0.02994
9. 자녀의 사교육비를 위해 부업을 하고 있다.		0.29270	-0.16034	0.79319
10.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여 그 돈을 필요한 곳에 썼다.		-0.06050	0.32459	0.66971
11. 이웃, 친구, 친척에게서 돈을 빌려 쓴다.		-0.27555	0.36948	0.59948
	고 유 치	3.2271	1.8075	1.0338
	전체변량	29.34	16.43	8.49
	누적변량	29.34	45.77	54.26
	평균(표준편차)	3.50(0.97)	3.42(0.88)	2.56(1.04)
	Cronbach's α	0.72	0.62	0.55

4.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

가계의 대처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13개의 변수를 Varimax에 의한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방법을 이용하여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인 변수 11개를 추출하였다. 이 11개 변수를 요인분석한 결과 Scree test와 Eigen값 1.0이상

인 요인을 바탕으로 3개의 요인으로 묶여졌다(표 4 참조).

요인 I은 예산수립, 저축, 지출제한 등의 행동으로 '계획행동'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II는 가격이 싼 상점이용, 중고품구매 등으로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여 소비지출을 줄이는 행동으로 파악하여 '절약행동'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III은 주부의 부업, 신용과 이웃에게 돈을 차용하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를 '소득창출행동'이라 명명하였으며, 이 세 요인은 54.26%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에 대한 가계대처행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계획행동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절약행동과 소득창출행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계획행동은 구매시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Magrabi, Chung, Cha & Yang (1991)은 소비자가 전 생애에 걸쳐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최적화 소득분배를 추구하는 방편으로 차용이나 저축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칫 자녀에 대한 투자로서 그 성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용을 고려한 미래소득의 분배는 가계의 부채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사교육비 부담감에 대한 대처행동의 유형화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의 대처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은 요인에 대한 반응인 요인 구성변수의 평균값을 통해서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여 명칭을 명명하였다. 군집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결측치가 분석에서 제외된 총 814개이며, 요인구성변수의 평균값은 <표 5>에 제시하였다.

군집분석은 각 요인에 대한 가계의 요인점수를 기초로 하여 수행되었다. 요인점수의 동질성을 측정

하기 위해 유클리드 거리자승법(squared euclidean distance)이 사용되었고, 동질적인 가계를 묶는 방법으로는 Ward's minimum-variance method가 사용되었다. 또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군집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Pseudo F값과 CCC(Cubic Clustering Criterion)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여 3개의 군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처전략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군집 1은 계획행동과 절약행동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창출행동이 다른 집단에 비해 중간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군집 1은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절약구매나 예산을 계획하는 등의 가계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행동으로 파악되어 이를 '재무관리 대처행동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계획행동, 절약행동과 소득창출행동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집단의 특징은 특별한 대처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소극적 대처행동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계획행동과 절약행동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중간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창출행동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모든 요인의 대처행동에 일반적으로 점수가 고르게 높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적극적 대처행동유형'으로 명명하였다.

6. 대처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감에 따른 각각의 대처행동

<표 5> 대처행동의 유형화

	군집 1 306(37.6%)	군집 2 283(34.8%)	군집 3 225(27.6%)	F-ratio
계 획 행 동	H	L	M	8.15***
절 약 행 동	H	L	M	3.33*
소득창출행동	M	L	H	4.84**

*p< 0.10, **P< 0.05, ***P< 0.01

주) H : High, M : Middle, L : Low

유형에 대한 변수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사교육비 부담감에 따른 대처행동유형에 관한 연구모형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관리 대처행동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남편의 직업이 일용근로직보다 자영상인·제조업자일수록 가계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채보유액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사교육비 부담감이 클수록 재무관리 위주의 대처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자녀수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교육비 지출은 증가(문숙재·김순미·김성희, 1996; 양세정·이윤급, 1997)하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이에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위해서는 계획

과 절약을 통한 재무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수가 많은 가계는 사교육비 지출의 대처행동유형으로 재무관리를 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부채가 있다는 것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예측되어,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계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재무관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손상희(1995)·김순미(1993)의 연구결과 부채부담이 크고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인지하는 가계일수록 재정관리를 덜 하였다는 결과와는 상반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경우 가계 재정이 열악할수록 재무관리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 저하되는 반면, 사교육비의 경우는 자녀의 투자비용으로서 필수적인 지출 비목으로 간주하여 가계 재정이 열악할수록 재무관리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표 6〉 대처행동유형에 따른 로짓분석결과

변수	구분	재무관리 대처행동유형	소극적 대처행동유형	적극적 대처행동유형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주부의 연령		-0.046(0.030)	-0.019(0.031)	0.001(0.042)
주부의 학력		-0.036(0.049)	0.093(0.051)**	-0.008(0.031)
주부의 직업(주부) 취업주부		-0.135(0.211)	0.281(0.219)	-0.190(0.232)
남편의직업(자영상인·제조업자)				
일용근로직		-0.554(0.335)*	-0.251(0.335)	0.346(0.316)
사무직		-0.186(0.374)	-0.309(0.402)	0.513(0.371)
전문·관리직		0.268(0.249)	0.028(0.259)	-0.224(0.290)
자녀수		0.401(0.187)**	0.185(0.192)	-0.036(0.197)
가계소득		-0.049(0.089)	0.091(0.089)	-0.030(0.101)
금융자산		-0.005(0.002)*	-0.001(0.002)	0.004(0.002)**
부채보유액		0.019(0.007)***	-0.006(0.008)	-0.006(0.009)
저축		-0.007(0.019)	-0.008(0.019)	0.031(0.021)
주택소유(자가) 타가		0.163(0.229)	-0.224(0.249)	0.216(0.254)
중학교 사교육비 지출		-0.001(0.005)	0.002(0.006)	-0.001(0.006)
고등학교 사교육비 지출		0.002(0.004)	-0.010(0.004)**	0.004(0.004)
사교육비 부담감		0.035(0.018)**	-0.006(0.018)	-0.009(0.019)
거주지(강남·서초)				
광진·성동·송파		-0.161(0.318)	-1.515(0.326)***	-1.063(0.342)***
성북·마포·강북		0.474(0.319)	-0.373(0.308)	-0.409(0.330)***
성남		0.269(0.357)	-0.129(0.333)	0.148(0.344)
상수		1.375	-1.054	-0.527
-2 Log Likelihood X ²		612.674**	573.995***	533.924**

*p< 0.10, **P< 0.05, ***P< 0.10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와 마찬가지로 가계 자산은 가족의 재정적 자원의 확대 및 지출유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자산이 적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은 재무관리를 할 확률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이 클수록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대처행동유형으로 재무관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소극적 대처행동의 경우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고등학교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거주지가 광진·성동·송파지역보다는 강남·서초지역에 거주할수록 소극적 대처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주부의 교육수준과 사교육비 지출에 관해서는 일정한 경향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어 사교육비지출을 당연시하여 대처행동도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여유가 생겨 대처행동이 적어진다는 황덕순(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임정(198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부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재정문제를 보다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된 점으로 미루어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극적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적극적 대처행동유형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가계의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거주지가 광진·성동·송파 및 성북·마포·강북지역보다는 강남·서초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가계의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사교육비지출은 가계의 소극적 대처행동유형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고 있으며, 한편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과 대처행동유형과의 관계는 사교육비 지출보다는 사교

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인지할수록 재무관리 대처행동유형을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금전제약을 심각하게 느끼거나 생활표준과의 격차가 클수록 재정관리능력이 낮다는 김순미(1993)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재무관리 대처행동유형에서는 다른 비목과 달리 사교육비는 자녀의 인적자본의 투자비용으로서 현실의 재정적 문제를 자녀에 대한 기대로서 극복하여, 금전제약의 부담감을 재무관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사교육비 규모는 이미 가계 부담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에서의 과도한 지출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어 가계의 큰 부담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감에 대한 대처행동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환경속에서 가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계의 대처유형으로는 3가지 유형의 재무관리 대처행동유형, 소극적 대처행동유형, 적극적 대처행동유형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경제적 부담감이 부분적으로 재무관리 대처행동을 분류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소극적 대처행동유형을 분류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을수록 재무관리 대처행동유형을 더 강화하였는데, 재무관리 대처행동을 하는 집단의 특성으로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수록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통해서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대처행동유형을 선택하고 있었다. 즉 다른 대처행동유형과는 달리 사교육비지출 비용보다는 자산, 부채와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감 등 가계의 경제적 여건과 주관적 압박감에 의해 결정되는 대처행동유형이라 볼 수 있다. 소극적 대처행동유형은 주부의 학력인 개인적 요소와 사교육비 지출 실태에 따라 결정되는 대처행동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 대처행동유형은 차용 등의 유동성 자원을 이용하여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대처행동이나, 자칫 차용 자체는 가계 부채로 남아 원금 및 이자의 상환에 압박감을 주어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대시킬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방안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각각의 대처행동유형은 가계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문제해결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가계의 대처행동유형을 규명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계의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어느 특정 대처행동유형이나 대처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기에 해당하는 가계의 경우에는 사교육비 지출의 고정성을 고려하여 장기와 단기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지원망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계는 재정적 상황을 비롯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계의 집단별 경제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대처행동의 개념은 너무나 광범위하므로 실증연구를 위해서 3개의 대처행동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밀한 척도개발과 모형의 표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의 사교육비에 대한 대처행동이 가족의 만족도와 항상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즉 재무관리를 통한 대처행동에서 소비의 계획과 절약을 통한 소비규모의 축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이 같은 경제적 비용 외에 시간과 노력 등 심리적·정신적 부담감 및 기회비용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김미라(1993). 광주직할시 빈곤층의 가계구조와 가계관리형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시월(1998). 사교육비가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 삶의 질: 건국대학교 한국문제연구원편, 207-268.
- 3) 김영숙(1983). 장기 생활설계를 위한 가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57-93.
- 4) 김성희(1996).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체제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6)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37-149.
- 7) 김혜정(1995). 주부의 화폐관리전략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노자경(1996).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71-184.
- 10) 박명희(1976). 사교육비 현황과 가계: 서울시 가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4(1), 59-73.
- 11) 박배진(1997).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 및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손상희(1995).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33-143.
- 13) 양세정·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자녀수와 자녀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2), 81-101.
- 14) 윤성인(1997).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 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윤정일(1997). 사교육비의 개념, 증가요인 및 대

- 책. 소비자문제연구, 19, 1-28.
- 16) 임 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 인지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장병옥(1985).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1), 1-14.
 - 19)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최승애(1986). 도시 가정의 자녀교육비지출과 관련요인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최자영 · 임정빈(1996).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75-189.
 - 22)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이용실태조사.
 - 23)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4) 허경옥(1997).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측정: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8(2), 1-19.
 - 25) Becker, G.S.(1993). Human Capit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rd ed.
 - 26) Cronau, Reuben(1991). The Intrafamily allocation of good-how to separate the adult from the child. The Journal of Labor Economics, 9(3), 207-235.
 - 27) Dunkelberg, W.C. & Stafford, F.P.(1971). Debt in the consumer portfolio: Evidence from a panel study. American Economic Review, 61(4), 598-613.
 - 28) Lino, Mask(1990). Expenditures on a child by husband-wife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3(3), 2-18.
 - 29) _____(1994). Expenditures on a child by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7(3), 2-19.
 - 30) Margrabi, F.M., Chung, Y.Y., Cha, S.S. & Yang, S.J.(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 31) Michael, R.T.(1973). Education in non-market produc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306-327.
 - 32) Pearlin, L.L. & C. Schooler(1978). The Structure of coping. Th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19, 2-21.
 - 33) Voydanoff, P. & Donnelly, B.W.(1989).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